[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전환의 가치 실현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전환의 가치 실현

데이터는 석유인가, 햇빛인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2월 발간한 데이터 특집호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석유는 산

한 눈에 보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오피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성공전략 담다

전문가 칼럼 | 코스콤 리포트

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공전략

동영상 | 코스콤 스토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치 실현 데이터 플랫폼 기업, 코스콤

동영상 | 코스콤 스토리

코스콤 5.0시대 선언…데이터 플랫폼 기업 도약 방송분, 데이터 플랫폼 기업, 데이터 오피스5.0

동영상 | 코스콤 스토리

생활금융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해외사례 및 시사점 | 이슈N뉴스

한국에서 생활금융 플랫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로 세계 1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전자정부와 통신인프라 역시 세계 1위로 모바일 금융플랫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출시되는 새로운 영화와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생활금융 플랫폼이 한국에서 먼저 선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활금융 플랫폼과 생활밀착형 플랫폼이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버거를 찾아낸다. 어떤 나라보다도 신속하게 반응을 볼 수 있는 모바일의 테스트 베드화 국가인 셈이다.

데이터 플랫폼 관련 지난 기사 다시 보기

코스콤 API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준비

지난 9월 16일 금융투자회사 대상 마이데이터 API 구축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약 60여 명의 증권사, 운용사, 선물사 IT기획 개발자들이 참석했고 금융투자협회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담당자가 참석자의 질의에 응답했다. 코스콤은 이날 중계기관 추진 방안과 금투사들의 API플랫폼 구축 관련 검토 사안을 발표했다.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란 특정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에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해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기술로 낮은 개발비용으로 서비스나 데이터 간 교환 및 융합이 쉬어져 데이터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가 가르게 될 금융회사의 새로운 경쟁력

2014년부터 불어 닥친 핀테크 열풍이 없었어도 지금의 편리한 금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어느 세월에 바뀌겠어 했던 불편들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동력은 소비자의 선택에서 나왔다. 규제개선과 기술발전의 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혁신을 만들어낸 누군가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보다 소비자의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다수 소비자의 선택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또 다른 힘이 되었다. 지금까지 핀테크는 소비자를 접하는 표면적 서비스를 바꿨다면 이제부터는 금융의 정의를 바꿀만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비즈니스'ABCD', 코스콤 금융클라우드에서 한번에

10월23일(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공식 론칭행사 개최했다. 올해 1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과 공동사업 추진하기로 했던 본 계약의 성과 로 여의도 코스콤 데이터센터에 '금융클라우드 존'을 만들고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구축할 예정이다. 글로벌 IT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토종' 금융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하고, 데이터 해외 유출을 우려해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사에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코스콤 5.0’ 100일, 데이터 생태계 ‘게임체인저’ 지향

코스콤 5.0이란 코스콤이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비전 키워드다. 무선통신 5G시대를 맞아 자본시장 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고객들과 함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시대 스마트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현행 제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 40시간 ‘워라밸’ 근무 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미도 녹아있다. 특히 사업구조 확장을 통해 기존 자본시장 IT인프라 기업에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CEO의 의지도 반영됐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